

종단소식

조계종

마하연포교원 천도법회

인천 마하연포교원(원장 일지)은 19일 인천시립공동묘지에서 '제1회 아의염가천도법회'를 봉행했다.

진각종

독립기념관서 영산대제

총무원(원장 인곡)은 21일 전남 독립기념관에서 민족대화합과 남북평화통일기원 영산대제 봉행했다.

했다. 대웅보전은 전통양식에 48평 규모로 3년여 공사끝에 완공됐다.

천태종

화은사 553존불 봉안

총복 보은 화은사(주지 곡수산)는 22일 부처님 점안식 및 대웅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진각종

통리원 추기강공 개회

통리원(원장 성초)은 21, 22일 양일간 흥인원에서 정기 51년도 추기 강공을 개최했다.

선대열반 스승 추념불사

통리원(원장 성초)은 22일 흥인원 대강당에서 선대 열반 스승 추념불사를 봉행했다.

총무원(원장 인곡)은 21일 전남 독립기념관에서 민족대화합과 남북평화통일기원 영산대제 봉행했다.

석왕사 청동대법종 타종

춘천 석왕사(주지 권백운)는 17일 호국안민을 기원하는 청동대법종 조성기념 타종식을 봉행했다.

용화사 대웅보전 낙성

전남 담양 용화사(주지 수진)는 19일 대웅보전 낙성식 및 봉불전안 만도불사를 봉행했다.

총지종

예산시의 교리연구 발표

통리원(원장 법공)은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간 총지사에서 제50회 강공회를 개최했다.

일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해인사 지구촌 승려 참선도량 금산사 미륵 10선운동 전개

21세기 새가람 '탈바꿈'

21세기 포교를 위한 새로운 신앙 형태가 제시돼 주목을 끌고 있다. 2002년 개산 1천2백주년을 맞는 해인사는 참선수행 도량으로, 1999년 개할 1천4백주년을 맞는 금산사는 미륵 10선(善)운동을 통한 생활실천도량으로 탈바꿈한다는 것.

만불전을 건립하고 성보박물관과 수련원, 대장경연구소, 도서관 등을 포함한 해인불교종합문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을 하지말라 △부드러운 말로 증생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라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99년에는 '금산사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갖고 집찰법회, 육운법회, 각종 문화예술공연 등 기념행사를 펼칠 방침이다.

지장보살 김교각 스님 1300년만에 동상 귀향

중정부 불국사 봉헌

중국에서 지장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김교각스님이 1천3백여년만에 동상으로 고향인 경주로 돌아온다.

3.2m, 무게 2.8톤 규모의 청동불상으로 중국의 안휘성 정부가 지난해 조성해 불국사에 봉헌했다.



◇중국서 조성 1천3백여년만에 고향 경주에 돌아온 지장보살 김교각스님 성상.

위덕대 내년 10개학과 증설

컴퓨터 공학등... 신입생 440명 증원

진각종 총림 위덕대학교(총장 손제석)는 내년도 입시부터 10개 학과를 증설하고 4백40명의 신입생을 더 선발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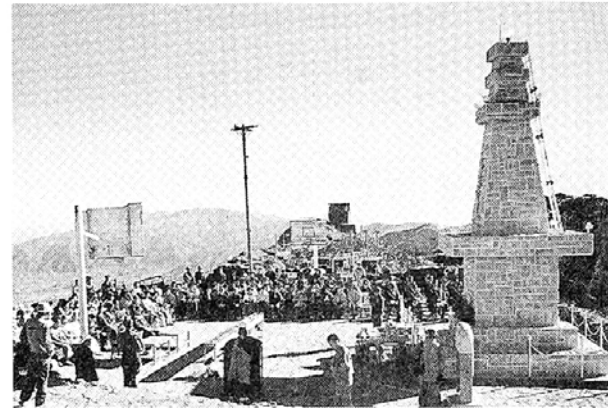
위덕대는 또 내년부터 경영대학원을 신설하고 석사과정, 연구자과정, 단기과정의 신입생도 선발하기로 했다.

홍콩 프로그램 전시회

위덕대는 22일 10개학과 신설에 4백명을 증원하고, 전기공학과와 정보통신공학과는 각 20명씩 입학 정원을 늘리는 등의 '98학년도 증원종과 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경주 월명재 행사 다채

불교TV는 12월4일부터 6일까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프로그램 판매시장인 97 MIP-ASIA전을 통해 '고려대장경' 등의 프로그램을 세계시장에 진출한다.



휴전선 최고봉에 통일대탑 6·25당시 최대의 격전지, 휴전선 155마일중 최고봉인 가철봉(해발 1242m)에 통일을 기원하는 대탑이 세워졌다.

"현대인 중독증 삼독심 원인"

'불교와 문화' 가을호 지적했다. 공위원은 또 "현대인의 중독 현상은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三毒), 즉 탐냄과 성냄 어리석음에서 연유하며, 그 삼독심에서 벗어나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이룰 때 해소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불교방송 가을철 프로그래밍

불교방송이 11월3일부터 가을개편을 단행한다. 생활 정보 시사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를 시도한 이번 개편에서 신설된 프로그램은 '마음을 비우고' 등 3편이다.

Large advertisement for Sanyo reclining chairs. Features images of two different chair models, detailed lists of features like '주무름 기능' and '등받이 각도 조절', and pricing information. Includes the Sanyo logo and 'Human Electronics' tagline.